

2023년 대한지리학회 남계논문상 수상 논문 선정 요지

2023년 남계논문상 수상논문으로 홍승표박사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남북한 대립체제에서 사이공간의 탄생과 진화: 개성공단을 사례로』가 선정되었습니다.

대한지리학회 남계논문상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 남계논문상 선정위원회는 대한지리학회 부회장 진종헌교수, 학술이사 김대현교수, 총무이사 이견학교수, 국제이사 양병윤교수, 그리고 학회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된 이승욱 카이스트 교수, 이후빈 강원대 교수, 지명인 전남대 교수의 7인으로 구성되었다. 2023년 6월1일 엄정하고 객관적인 최종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홍승표 박사의 학위논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 논문은 개성공단이 남한과 북한의 대립적 속성을 가진 두 체제를 매개하는 공간이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이질적인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사이공간(in-between space)’으로 고찰한 의미 있는 논문입니다. 그동안 개성공단의 경험에 대한 정치, 경제, 법, 평화, 통일의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개성공단이 가진 실제적인 공간성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 정치지리적 연구로 학술적, 실천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 상호작용에서 갈등, 제도적 해결, 규범화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과정이 물리적 공간의 형성 및 재구축과 맺고 있는 관계를 탐구하는 개념적 틀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연구와 정치지리학 및 지정학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공적을 인정하여 심사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전공 홍승표의 논문 『남북한 대립체제에서 사이공간의 탄생과 진화: 개성공단을 사례로』를 제19회 대한지리학회 남계논문상 수상논문으로 선정합니다.

2023년 6월 1일
남계논문상 심사위원회